

2017년 9월 27일, 한경면 조수2리 조수2리노인복지회관, 이효순 조사.
변수진(여, 1934년생, 한경면 조수2리)

- 줄거리: 육각형 정자가 있는 고개에는 죽은 오누이의 원혼이 사람의 간을 떼어 먹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다. 한 청년이 그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데, 그의 증조할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나서 손자에게 향불을 피우라고 알려주었다. 증조할아버지가 일러 준 대로 향불을 피운 손자는 무사히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.

[제보자] 옛날에 육각형 이디 알아지지예. 그디는 총소리허고 전깃불 안 들어올 때는 도체비가 그렇게 많아. 헛불도 많았고 도체비도 많았고. 그디 가그네 자살행 죽는 사람도 잇고 헷인디. 총소리 나오고 전깃불 난 후제는 구신이 하나도 엊어. 전설이 고향에 안 나오는디. 그 고개를 넘젠을 허민.

오누이가 죽엇인디 그 동산을 넘젠 허민 살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엊어. 젊은 청년이 그디 넘어가멍 할아버지가. 증조할아버지가 곤기를, 만약에 가다그네, 아가씨하고 젊을 때 죽은 거 오빠하고 사는디. 여자하고 남자가 나타나면, 할아버지가 곤는디

“그 사람 나타나면 향을 피우라.”

고. 향을 피우렌 허난 그 할아버지가.

간을 떼 먹어부난 넘어가는 사람들이 엊어낫젠. 죽어불엉. 말 골을 때에 증조할아버지가 나와서 향을 피와라. 손지보고 골았주.

향을 피우난 그 사람들이 사라젼. 그 남자는, 다 죽엇인디 증조하르방 덕분에 살양 나오고.

- 핵심어: 고개, 동산, 오누이, 원혼, 증조하르방(증조할아버지), 손자, 향, 향불, 간, 구신(귀신), 육각형, 정자, 도체비(도깨비)